

# 제행무상 일깨우는 영겁의 소리

월 2회 연재

##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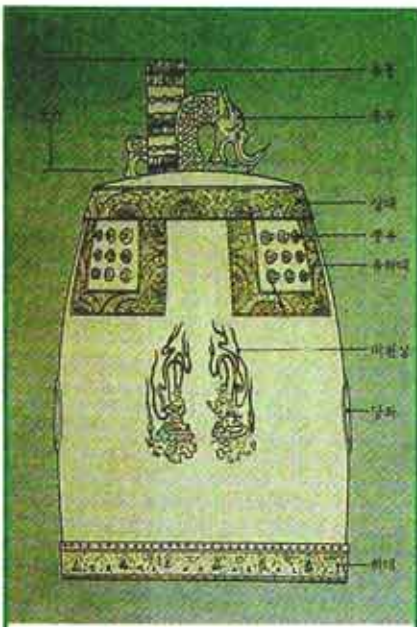
### 범종

종은 동서고금을 통해 때와 곳을 알리는 상징이다. 시계가 보편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종을 쳐 시간과 사건의 시종(始終)을 알렸다. 한자어 종(鐘)은 쇠로 만들고, 때리면 '동동' 소리가 나기 때문에, 뜻을 나타내는 '술' 자와 소리를 나타내는 '종' 자를 합쳐서 만든 형성자(形聲字)이다.

독특한 범종의 형태와 주금술, 그리고 영겁의 소리에도 비견되는 아름다운 종소리로 세계 명종(名鐘)의 하나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우리나라 범종은 그래서 '한국종'이라는 혁명(擘名)을 얻게 되었다. 용주에서부터 종신의 각 부분에 이르기까지 금속공예가 총집합된 결정체라 할 수 있는 범종은 신라, 고려 조선 등 각 시대 별 특징과 양식, 사상성을 가지고 변천해 왔다.



○시정세계에 퍼지는 한국의 범종소리는 종성의 반뇌를 소멸시키는 범천의 소리, 법계의 왕음으로 상징되고 있다.



### 범종 각부 명칭

음관 · 유곽 · 유두는 한국종만 갖춘 특징

○용뉴(龍紐): 용의 모양을 취한 범종의 가장 윗부분. 이곳에 쇠줄을 연결하여 종을 매달게 된다.

○음관(音管): 용의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음관은 용통(甬筒) 용봉(甬筒)이라고도 불리어지는 소리대롱이다. 외국 종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우리나라 범종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

○상대(上帶) · 하대(下帶): 상대는 종의 어깨 부분에 둘러진 무늬띠이고 하대는 종의 아랫부분인 종구에 둘러진 무늬띠이다.

○유곽(乳廓) · 유두(乳頭): 유곽은 상대 밑쪽의 네 곳에 붙어있는 네모난 테이며 유곽속에는 각각 9개의 볼록 솟아있는 돌출물이 있는데 이를 유두라 한다. 그 솟은 부분 주위에 꽃관이 있는데 종사 꽃꼭지 모양과 같다고 하여 유두라 부르게 된 것이다. 이 유곽과 유두도 다른 나라 종에는 없는 한국종만이 갖는 뚜렷한 특징.

○당좌(堂座): 당좌는 종을 치는 당목이 직접 접촉되는 부분이다. 신라종은 이 당좌에 주로 연꽃 무늬를 새겼고 당좌를 종의 양쪽에 두었는가 하면 고려종은 사방에 네 개를 조각하였다.

○비천상: 천의를 너울거리며 연꽃방석 위에 무릎을 꿇거나 꼬리 긴 폭구름을 타고 푸른 하늘에 떠서 악기를 다루고 있는 비천상은 신라종에서 많이 나타난다. 고려종은 비천상 대신 꼬리구름 위에 놓인 연꽃지리에 홀로 앉은 부처님이나 보살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조선종은 연꽃위에 꽃꽂이 선채로 합장한 보살이 유곽과 유곽 사이까지 올라와서 네곳에 새겨져 있다.

원 근대 이 종소리 범종에 두루 퍼져 활위산의 그 어둠에서 벗어나 모두 다 밝아지소서 삼악도의 고통을 여의고 도산지옥을 허물어 모든 중생이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 어지이다.

願此鐘聲遍法界 願出諸惡障 三途離苦海 一切眾生成正覺 (새벽예불 범종)

신래벽, 그리고 저녁 어스름, 범종 목이 음관에 이어 장중하게 28번 종이 울린다. 웅장하게 시작된 범종소리는 은은한 여운을 길게 남기며 사방세계에 두루 퍼진다. 육계의 4천, 색계의 18천, 무색계의 4천의 모든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불타는 마음을 다독이듯 가라앉히고 제행무상을 일깨운다. 장중하면 서도 이슬처럼 영롱하고 맑은 그 소리는 가슴을 뚫고 들어 살갗에도 하고 박한 감동에 가슴을 울리게도 하며 무한한 관희심을 느끼게도 하고 긴 여운을 따라 태초의 적막에 이르게도 한다.

범종소리는 모든 중생의 각성을 촉구하는 부처님의 음성이다. 그 소리는 지옥의 고통을 쉬게하고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며 끝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정신을 일깨우는 지혜의 소리다.

범종소리는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일승(一乘)의 진리를 설파하는 원음(圓音)의 사자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라인의 불심과 미학, 음향학, 과학기술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 혼연히 이뤄낸 한국종의 대표작 성덕대왕신종의 몸체에는 종소리를 통해 사방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부처님의 원음에 항상 귀기

## 마음으로 들어야 번뇌 소멸

상원사 범종 가장 오래된 신라의 소리

## 비천·연화문 대표적 한국美

올여 구도심을 일지말아 깨달음의 길에 오를 것을 강조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

현존하는 신라범종으로는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상원사종(725년)과 '에밀레종'이라 불리는 '성덕대왕신종(771년)', 6·25때 불타버린 신림원종, 일본에 있는 5장 등 모두 11점이 남아 있다.



○전형적인 한국종으로서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성덕대왕신종.

고려종으로는 용주사범종 등 총 97점(일본에 23점)이 있으며 조선시대 범종은 선암사대각암범종 등 96점이 남아 있다.

연화문, 비천(飛天)상, 당초문 등 범종 몸체에 새겨져 있는 문양은 우아하고도 세련되어 한국의 공예미를 대표하고 있으며 현대 디자인에도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용주사 범종의 몸체에는 천의가 날리는 살선상이 새겨져 있다.

계 응용되고 있다.

### ■상원사 범종(국보 36호)

현존하는 신라시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아름다운, 8세기 전반기 우리 고대 금속공예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인종의 문무종이었다가 1469년 오대산 상원사로 옮겨왔다. 종 높이는 167cm 구경 11cm로서 사실적이고 청량 용두를 취하여 종신의 각부 조형이 극히 아름다운 수작이다. 종신의 상하에는 연주문(連珠文)의 비를 둘러고 아름다운 화문과 당초문을 가늠 채판으며 그 사이에 악기를 연주하는 현인상을 양각으로 나타내고 있다. 유곽 바로 아래 종신의 넓은 공간에는 상대되는 곳에 종을 치는 부분인 안영의 당좌를 놓았는데 이 당좌는 8인의 연화문으로 구성되어 종신의 양쪽 대칭되는 곳에는 일면 2구씩 악기를 연주할 참 비천상을 조각해 놓았는데 한 쌍의 유곽비천상이 생동과 공후 등을 연주하며 우주공간을 날고 있어 범천의 모음(妙音)을 상징하는 것 같다.

### ○우리나라 범종에만 있는 종고리 부분의 유관



○우리나라 범종에만 있는 종고리 부분의 유관

### ■용주사 범종(국보 120호)

신라범종의 양식을 충실히 나타낸 고려시대의 범종이다. 상대의 문양은 신라범종의 문양과 매우 흡사한 문양을 서로 상하 고대로 배치하여 사이사이를 당초문으로 장식하였으며, 하대의 문양은 연속되는 당초문으로 장식했다. 특히 하대의 주문양인 당초문은 당초가 현인 구부러지는 중앙에 8관 내지 9관의 연화문을 독립시켜 배치하고 있는 특이한 장식법을 취하고 있다. 높이는 144cm 구경 87cm

### ■봉덕사 성덕대왕신종(국보 29호)

높이 333cm로 신라 경덕대왕이 부왕인 성덕대왕의 명복을 빌기위해 경동 12만근으로 큰 종을 만들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순화하자 그 아들 혜공왕이 즉위 7년(771년)에 완성했다. 종구는 부드러운 발음형을 이루고 있으며 구대 현대 유곽의 주연을 둘러싼 보살상문으로 장식하고 사면의 유곽인에는 각 아홉 개의 연화문 공후를 넣고 유곽 아래 종체내 나무끼는 듯 아름다운 곡선으로 비천상이 양각되어 있다. 화려하면서 박력있는 용문과 용구 등

### ■내소사 동종(보물 277호)

높이 103cm 구경 67cm로 고려후기를 대표하는 범종이다. 유곽내에는 돌기된 9구가 있고 유곽밖으로 종관 연화로 된 당좌가 네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종신 중간의 유곽과 유곽 사이에는 반개한 연화가 방치고 있는 구름위의 상존상이 네곳에 양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경숙 기자(gisae@buddhapa.com)

## 성·동·석·재·불·사·공·예·사

"오랜 전통과 최고의 작품으로 모시는 것이 불교석재조각의 대가 성동석재 불사공예사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 귀의 삼보하옵고,

20여년 동안 쌓은 섬세한 조각기술과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작품조성으로 보답하고자 하오니 고승대덕 큰스님 및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대표 김성수 합장



성동석재불사공예사 | 전 화 : 0357)31-8736 | 팩 스 : 0357)31-5549 | 호 출 : 012)321-6044 | 핸드폰 : 011)284-5101

**20년 경험 불자건축**

· 무 · 료 · 상 · 담 ·

귀의 삼보하옵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의 토목, 건축공사에도 상담을 원하시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공사: 요사채, 사찰건물, 불자건물
- 토목공사: 진입로 확장 · 신설, 산림제거
- 하지보수공사: 누수, 구조적 결함
- 계획 및 설계: 소규모라도 수시 무료 상담
- 시공 협의: 완벽한 공법제시

**대중건설 노광운 합장**  
연락처: 011)405-0703 042)863-0756

## 난치병치료안내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을 치료한 고봉거사는 사망협술과 최고양질의 우리 농산물로 만든 환약(말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 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현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초기 등 탁월하게 치료됨

※ 당료: 풍성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 익수영진고

경숙고보다 10배이상 우수한 약효력, 9일간 밤낮으로 불로 다려서 만듦.

### 왕기지신편

한국에서 유일하게 1200년전 당나라 선도의술의 의성 주진형의 놀라운 비법 알약

※ 100% 우리 농산물로 가공

늦은 가을 전통죽염, 최고급 죽염간장 출시 예정

※ 의사인 고봉거사, 지리산 토송자 신선도인, 인체공학박사 등의 왕진, 출장도 안내합니다.

◆ 문의전화 : (011) 808-8880 (영진, 출장) (053) 655-3027